

'85 간흡충치료사업 및 검진

88년도 서울올림픽 대회전까지
간흡충 완전퇴치를 목표로
전국 13개 시도, 57시군구,
119읍면동에 검사인원 442,000명,
투약인원 78,400명을
국고로서 무료치료



이 준 상

간흡충 퇴치사업은 보건위생, 선진국 대열에 동참하는 지름길

우리나라의 간흡충(간디스토마)감염율은 1981년 통계에 의하면 2.6%에 이르러 현재 100만명이상이 간흡충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보건사회부와 한국기생충박멸협회는 1982년 간흡충감염율이 높았던 지역을 5개도에서 각각 1개면씩 선정하여 간흡충양성자 3,556명에 대하여 새로 개발된 약제로 치료하였다. 1984년에는 25,000명투여분(약값 99,257,000원)의 약제로 대상 지역 10시·도, 26시·군·구, 36읍·면·동의 168,000명을 대상으로 검사한후 치료하였다. 금년에도 13시·도, 57시·군·구, 119읍·면·동의 주민 442,000명을 검사대상자로 하여 85년도 간흡충치료사

업을 계획하였다. 작년에 비하여 3배정도 확장하여 치료사업을 전개하게 되는데 투약예정 인원도 78,400명에 이른다.

이사업의 목적은 하천유역의 간흡충감염 농후지역 거주주민에 대해 집중적으로 간흡충검사를 실시하고 감염자는 관찰 보건소에 등록후 무료로 치료한다고 한다. 방침은 지역단위로 일시에 전대상자를 검사하는데 가검물검사는 한국기생충박멸협회에서 담당하고, 간흡충의 다른 기생충 감염자에 대하여도 무료 투약하며, 간흡충 감염자중 일부는 투약 1-2개월후에 효과관정을 위한 2차 변경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치료약은 고려의대 임한중교수가 과거 다른 약제보다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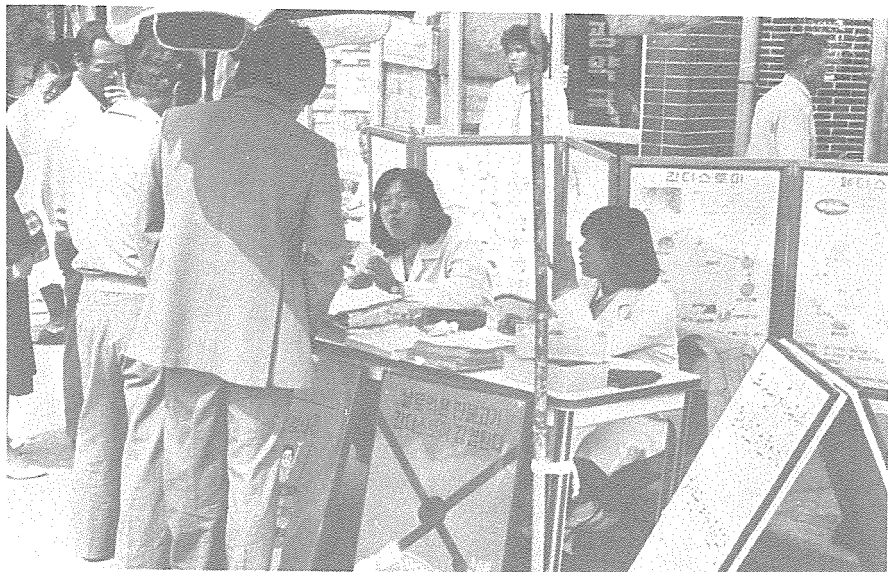


사진 : 가두검진반의 무료 상담장면

전하고도 치료효과가 좋다고 하는 프라지 퀴넨(상품명 : 디스토시드 와 빌트리시드)을 사용한다. 이약을 대량으로 사용할 때에는 체중kg당 40mg씩의 용량으로 단 1회 투여하는데 완전히 간흡충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남아 있는 간흡충의 숫자는 상당히 줄어들어 질병을 야기하지 않을 정도가 되며 실제적으로는 치료가 되는 상황으로 전환됨을 뜻한다.

간흡충 치료제 투약시 유의사항으로는 노약자 및 임산부는 투약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부작용으로는 어지러움, 두통, 구토, 복부불편, 메스꺼움, 상복부부통, 설사, 식욕부진, 전신피곤감, 발열, 땀, 알레르기성 발진과 가려움증이 올 수 있으나 심한 편은 아니고 참을만한 정도이다. 그러나 간장부위에 압통이 심한 경우에는 “푸스코판”을 투여하고 안정시키면 5~6시간 후에는 호전된다.

우리나라에서 간흡충감염은 국민보건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질환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감염율이 높으면서도 감소할 줄 모른다는 사실과 감염분포지역이 광범위 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이 간흡충감염이 풍토병적으로 존재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고루 갖고 있다. 낙동강, 남한강, 금강, 영산강 및 만경강 등 큰강 유역은 물론 이터니와 그의 개천, 제방, 호수 등까지도 생태학적으로 간흡충이 만연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둘째, 국민들이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즐겨이 먹고 있는 민물생선회를 보건교육이나 예방대책으로 근절시키기는 어렵다. 보건교육만 보더라도 현재에는 국민 학교,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들 학생들의



사진 : 간흡충치료사업검사량 광경을 MBC에서 취재

간흡충감염율은 낮은 편이다. 감염의 기회가 많고 실제적으로 감염율이 높은 어른들에게는 보건교육의 기회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 개발된 약을 과신하는 일까지 있다. 그들 주장은 새롭고, 효과 좋은 간흡충치료제가 나왔으니 약만 먹으면 될 것인데 왜 그리 걱정하느냐 하는 것이 작년 간흡충 치료사업 때 현장에 가서 자주 들던 말이다. 이 얼마나 무서운 과신인가. 한번 나빠진 간장이 설령 약으로 치료하였다가 다시 회복되는 데에는 많은 시일이 요할뿐만 아니라 간흡충으로 인하여 생긴 간경변증이나 담도암같은 악성 질환은 간흡충치료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이다.

셋째, 간흡충 감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가 많다는 점이다. 간흡충감염자에서 제일 흔한 증상은 심한 피로감, 상복부 통증등으로써 흔히 40세를 전후하

여 노동력 상실을 초래한다. 그러나 간흡충이 많이 감염되었을 때에는 담관염, 담석증, 담관폐쇄등의 증상이 흔히 발생되며, 감염자중 일부는 담도암으로 발전하거나 간경변증과 비슷한 증상으로 인하여 사망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에 보고된 이화의대 민홍기교수의 연구발표에 의하면 간흡충감염으로 담관암발생에 있어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기 보다는 담관암의 한 유발요인으로서 중요하게 관련되고 있음이 인정되고, 간흡충이 담관에 도달하게 되면 바로 조직반응이 야기되고 경시적으로 병리조직학적 병변이 진행되며 여기에 발암물질이 작용하게 되면 상승효과가 생겨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같은 배경에서 간흡충을 본격적으로 관리하려 할 때 관리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간흡충을 뿌리째 없애고 완전히 박멸한다는 것은 아주 어렵다. 따라서 관리의 목표는 우리국민에게 있어서 간흡충 감염을 최소한으로 국한시키며, 동시에 간흡충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 치료할 수 있게 하는데에 있다.

앞으로 국가와 사회는 좀더 간흡충 집단관리의 제도화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미 감염된 간흡충 감염자를 집단으로 치료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결국 환자 자신의 건강호전 뿐만 아니라 다른 조건의 변화없이도 민물어류나 패류 목주의 감염을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즉 간흡충 집단관리는 보건교육을 제외하면 집단치료 밖에는 방법이 없고, 또 집단치료는 여러면에서 유리하고 결과가 확실한 방법이다. 그 이유로는 보건사회부는 국고의 많은 재정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간흡충 치료사업을 매년 확장하고 있으며, 기생충집단관리에 필요한 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기생충박멸협회와 기생충병을 전공하는 많은 학자가 있고, 안전하고도 유효한 약제인 프라지칸텔이 우리나라에서 생산·판매되

므로 외화를 낭비하지 않고도 쉽게 공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도 이와 같이 많은 국고의 예산을 써서 실시하는 간흡충 치료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86년 아시아올림픽 및 88년 세계올림픽 때에는 간흡충 없는 금수강산을 세계에 뽐내야 할 것이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어느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행정단위인 읍·면·동의 전체 국민을 위하므로 한번 치료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던 지역은 다시 선정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 그러므로 자기 개인사정이나 등한시로 인하여 치료사업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간흡충치료를 받으면 보건소나 병원에서 대변검사를 받고 약국에서 많은 약값을 지불하여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좀더 광범위하게 간흡충 치료사업을 전개하도록 많은 예산을 설정하여 빠른 시일내에 간흡충퇴치 사업을 하여 보건위생적으로 선진국대열에 서도록 국민과 함께 힘써야 하겠다.
(필자=고려의대 교수)

토막상식 ●

도시가스 사용지혜



- 조리시 가스의 올바른 불꽃의 색깔은 안쪽은 푸른색 바깥쪽은 연한 자색이

- 고 폭은 넓고 길이는 짧으며 안정된 상태로 힘있게 연소하게 된다.
- 집화는 남비를 올린뒤에 하고 소화는 내리기 전에 한다.
- 화력의 조절은 남비 크기에 맞게한다.
- 남비의 밑부분은 평면으로 된 것이 좋다.
- 버너의 불구멍이 막히면 열 효율이 떨어져 손해가 되므로 자주 청소를 해주어야 한다.